

TV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⑥ 40 토크쇼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이브의 사랑>	30 KBC 모닝와이드
⑧ 00 아침경제 끝난 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황홀한 이웃>
⑨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그래도 푸르른 날에>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⑩ 20 시사 인사이트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아홉PD의 요리인류 키친(재) 5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⑪ 30 채널A 뉴스특보	00 2015 광주 U대회 D-30 월드 투 유니버시아드 광주 55 바른길 고운말	10 수목드라마 <복면검사>(재)	00 2015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샌프란시스코>	10 KBC 생활뉴스 30 세계문화탐방 <지구촌 속재>(재)
⑫	00 KBS 뉴스 12			00 SBS12뉴스 45 닥터 365 55 건강클리닉 55 날씨와 생활
① 50 뉴스 특급	00 대조영(재) 55 시청자 칼럼 우리사는 세상	10 체인지업 도시탈출(재)		
②	00 일하는 당신 행복하십니까 50 세계인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역사저널 그날(재)	30 똑?똑! 키즈스쿨	00 영재발굴단
③ 00 직인직설	00 생로병사의 비밀 55 튜튼생활제조	45 후토스 읽어버린 숲(재)	00 MBC 뉴스 10 과학마술단 40 경제 매거진 M 스페셜	00 SBS 뉴스 10 SBS 이슈인 사이트
④ 20 캐드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40 TV유치원 공대공	25 일일특별기획 <딱 너 같은 딸>(재)	00 이야기 보따리 30 푸르기 탐구생활
⑤ 3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넘드 지구그레피	10 애니월드 40 동물의 세계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⑥	00 6시 내그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저녁 생활 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 365(재) 10 KBC 생방송 투데이
⑦ 10 나는 몸신이다(재)	00 KBS 뉴스7 30 필통	50 일일드라마 <오늘부터 사랑해>	15 일일연속극 <불굴의 차여사>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타지 따따따 20 일일드라마<달려라 경미>
⑧ 20 관찰 카메라 24시간	25 일일연속극 <가족을 지켜라>	30 반려 동물 극장 단막 55 비타민	5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너 같은 딸>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⑨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⑩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시사토크 뉴스쇼 사람들 55 국민대항정 우리가	00 수목드라마 <복면검사>	00 수목미니시리즈 <맨도롱 또똔>	00 드라마 스페셜 <기변>
⑪ 0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뉴스라이트 40 문화빅행 더 콘서트	10 추적 60분	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15 한 밤의 TV연예
⑫ 50 특별기획 해방 도시가 미래다	50 동행(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스페셜	35 MBC 뉴스 24 55 메이저리그 D가이더	35 나이트 라인

“인간·여자로서 성숙해진 느낌”



내일 개봉 영화 ‘은밀한 유혹’ 지연 역 임수정
‘내 아내의 모든 것’서 나이에 맞는 여성성 찾아
“벽 넘어 배우로서의 욕심 마구 풀어내고 싶어”

배우 임수정(사진)은 삼십대 중반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동안의 깨끗한 외모와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로맨스·멜로 영화의 대표 여배우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에게는 ‘어머니 같은 작품’인 영화 ‘장화, 홍련’에서 보여준 소녀 이미지에서 조금씩 벗어나 ‘씨어터’지만 ‘행복’, ‘김종욱 찾기’ 등을 거치며 사랑스러운 여배우로서 입지를 굳혀 나갔고 ‘내 아내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이에 맞는 여성성을 찾았다.

4일 개봉하는 신작 ‘은밀한 유혹’에서는 빛에 쫓기듯 끝없는 자살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의 재산을 차지하려는 여자 지연 역할을 맡았다. 지연은 자살자의 비서이자 사생아인 성영(유연석)의 제안으로 이 게임을 시작했지만, 회장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운명의 소용돌이에 말려든다.

임수정이 이제까지 맡은 배역 중에서는 가장 욕망과 사랑 사이에서 흔들리는 인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캐릭터라 할 만하다.

1일 종로구 소격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은밀하게 그려지는 캐릭터도 쉽지 않았고 촬영 환경도 치열해 나중에 이 영화를 뒤돌아보면 애뜻할 것 같다”며 “배우로서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인간으로서, 여자로서 조금은 성숙해졌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영화 출연을 결심하게 된 것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부딪쳐 물결처럼 불안하게 흔들리는 여자, 그러면서도 위기의 상황에서 스스로 극복하려는 주제적인 여성으로서의 모습에 끌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화에서는 ‘은밀한 유혹’이라는 제목과 달리 수위가 높은 장면은 없지만, 남자 주연배우 유연석과의 키스신은 꽤 밀도 있게 그려졌다.

임수정은 “부자지간인 두 남자와의 삼각관계를 극대화하는

장면이라 키스신 자체가 굉장히 도발적인 상황이었다”며 “상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장면”이라고 소개했다.

그동안 임수정은 유연석을 비롯해 당대에 손꼽히는 ‘멋진’ 남자 배우와 함께 연인 관계를 연기해 왔다. TV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소지성, 영화 ‘씨어터’지만 ‘행복’의 비(정지훈), ‘전우치’의 강동원, ‘김종욱 찾기’의 공유, ‘내 아내의 모든 것’의 이선균 등이다.

그는 특히 상대 남자 배우를 멋지게 보이게 하는 여배우로 꼽힌다.

임수정은 “그런 평가가 마음에 든다”며 “여배우가 가장 매력적일 때가 사랑하는 연기를 할 때이니 로맨틱한 여배우의 모습으로 비치는 데 대해 행복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내 아내의 모든 것’부터 소녀성을 완전히 벗어 버리고 여성성을 보여주는 쪽으로 변화가 커졌다고 했다. 들어오는 작품들도 그렇게 바뀌었다.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서 제 나이를 찾은 만큼 그는 이런 모습을 ‘극대화’하고 싶다는 배우로서의 욕심을 여러 차례 표현했다.

임수정은 “마구마구 풀어내고 싶다”며 “극대화된 악녀, 착할 거면 정말 착한 여자, 아주 세시한 여자, 아주 어린 청순한 캐릭터... 내 캐릭터가 계속 확장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연예인들이 예능 프로그램 출연과 소셜관계망서비스(SNS) 활동으로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지만, 그는 두 가지 모두 멀리하고 있다.

임수정은 “일부러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게는 예능감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됐다”며 “그래도 요즘은 조금씩 소통을 넓히려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연기를 더 활발하게 하는 걸로 만나려 한다”며 “1년, 아니면 1년 반에 영화 두 작품을 하자, TV드라마도 해보자, 생각하고 작품을 고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9:40 토크쇼 부모-그녀의 품격	15:00 초능력 특공대	19:30 EBS 뉴스
05:40 성공시대 가능한국인(재)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15 두기 탐험대	19:50 사신에서
06:10 세계의 눈(재)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30 뽀빠에 친구들	20:40 다크 오늘
07:00 뽀빠에 친구(재)	11:10 다크 오늘	15:45 부흥! 부흥! 브루미즈	20:50 세계테마기행
07:15 책과 땅(재)	11:20 세계테마기행	16:00 당동영 유치원(재)	<필리핀, 행복을 만나다>
07: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2:00 EBS 정오 뉴스	16:20 원더볼스	21:30 한국기행
07:45 꼬마버스 타요(재)	12:10 걸작 다크멘터리	16:30 우당탕탕 아이쿠	<내륙기행 보은 육전>
08:00 당동영 유치원	13:05 지식채널e	16:45 책과 땅	21:50 EBS 다크 프라임
08:20 로보카 폴리(재)	13:10 두근두근 학교에 가면	17:00 방귀대장 뽀빠이(재)	<인간과 패션>
08:35 방귀대장 뽀빠이	13:40 사이언스-지구인 자격평가	17:15 풍선 코끼리 발루보	22:45 극한직업
08:50 코코몽 3	13:50 말할라 뽀빠에	17:30 두디다공	23:35 세계견문록 아름다운
09:05 원더볼스(재)	14:00 마야의 모형	17:45 로보카 폴리	<신사쿠지>
09:20 풍선 코끼리 발루보	14:15 정글북 2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	24:10 한국영화특선
09:35 이팝 스페이스 정글	14:30 머털도사	19:00 곤	<미술관 옆 동물원>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II-일파개념>	12:10 올림포스 <국어II-일파개념>	07:00 2015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대버터강	(사회 3-1)
00:50 " <고교 영어독해-junior>	13:05 " <고교 영어독해-junior>	07:30 전산세무회계 시험대비강좌	"	(사회 4-1)
01:40 " <화물과 통계>	14:00 2016 수능특강 <국어B>	08:30 약학-의학-치학 입문자격시험	"	(사회 5-1)
02:30 " <기하와 벡터>	14:50 올림포스 <화물과 통계>	09:00 즐거운 수학 EBS MATH	16:50 "	(사회 6-1)
03:20 " <수학II>	15:40 " <기하와 벡터>	09:10 TV 중학 <국어①②>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16:30 " <수학II>	09:50 " <수학1(하)>	" <전과목 5-1>	
		10:30 " <도덕1>	18:00 TV 중학 <국어⑤⑥>	
		11:10 " <국어③④>	18:40 " <수학3>	
		11:50 " <수학2(하)>	19:20 필독중학국어 <시>	
		12:30 EBS 특강	20:00 EBS 인문학특강	
		13:10 중학 중간, 기말시험 대비 문제풀이 <사회 1-1>	20:50 EBS 기획시리즈	
		13:50 " <사회 2-1>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14:30 " <역사 1-1>	22:00 중학 중간, 기말시험 대비 문제풀이 <역사 2-1>	
		15:20 초등 중강학업 성취도평가	22:40 " <과학3-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3일(음 4월 17일 庚戌)

子	48년생 새로운 것이기는 하지만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다. 60년생 막힘없이 소통되어야 지장을 받지 않는다. 72년생 표면은 볼품 없으나 상당히 실속이 있을 것이다. 84년생 조금만 더 오른다면 고지에 도달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32, 06	午	42년생 막상 펼쳐 보면 허망할 것이다. 54년생 주된 골격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한다. 66년생 현재의 가시적인 상황만을 전제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78년생 하자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행운의 숫자 : 48, 56
丑	49년생 발전적이고 희망찬 영역의 활로를 개척하게 될 것이니라. 61년생 기본적인 것은 그대로 유지해 나감이 옳다. 73년생 집중적으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나니라. 85년생 고통의 끝은 지극히 달콤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0, 76	未	43년생 기급적 빨리 청산 할수록 이익이다. 55년생 빈 곳부터 먼저 채워주는 것이 낫겠다. 67년생 의도하는 요소가 있기는 하나 존재 방식이 다르다. 79년생 실행을 보류하고 자중하며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 행운의 숫자 : 89, 81
寅	38년생 제대로 살펴보고 인해야 할 것이니라. 50년생 충돌이 보인다. 62년생 종합한 후에 최종 결정을 내려도 된다. 74년생 인고의 국면 뒤에 성취의 기쁨을 만끽한다. 86년생 내적인 면에 많은 배려를 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12, 68	申	44년생 규모보다는 짜임새와 실리에 치중 해야겠다. 56년생 외형이나 수훈와는 전연 무관하다는 것을 알자. 68년생 상대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도 있다. 80년생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5, 98
卯	39년생 급하게 뛰어다니며 할 일들이 많아서 정신없겠다. 51년생 재고할 필요가 있나니라. 63년생 예견된 상황이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 75년생 원격 조종도 관측은 방법이다. 87년생 거의 완벽한 형태이다. 행운의 숫자 : 62, 83	酉	45년생 정기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곤혹스러워질 수도 있나니라. 57년생 어떻게 처세하느냐에 따라서 특성이 찬양되자 될 것이니라. 69년생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1년생 상대에게 이익을 쥐어 성립하나니라. 행운의 숫자 : 87, 78
辰	40년생 크게 한숨 쉬 일일이 생긴다. 52년생 결핍 속에 피어난 자 생력이 근간을 이룰 것이니 현대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가자. 64년생 신뢰 속에서 대범하게 처리하는 것도 근사한 일이다. 76년생 불수록 가관이다. 행운의 숫자 : 19, 71	戌	46년생 바탕이 빈약하니 기본에 충실함이 순조로운 것이니라. 58년생 어릴뜨게 하느니 차라리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낫다. 70년생 사적인 친분과 공적인 사실은 엄격히 구분 되어야 옳다. 82년생 임시적인 상황일 뿐이다. 행운의 숫자 : 80, 92
巳	41년생 함께 관련될 수밖에 없다. 53년생 자신의 진짜 속내를 알아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65년생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야 한다. 77년생 혼자만 보아도 가히 집적할 만하다. 행운의 숫자 : 97, 26	亥	47년생 고정 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자. 59년생 근본적인 요인은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나니라. 71년생 적극적로 참여하여 후회하지 않는다. 83년생 낮은 곳으로 임하는 자세가 요정된다. 행운의 숫자 : 99, 9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기자 역할, 집요한 내 성격과 잘 맞아”

영화 ‘소수의견’ 공수경 역 김옥빈

여배우 김옥빈(사진)이 실제 직업으로 기자를 택했다면 잘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김옥빈은 2일 서울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열린 영화 ‘소수의견’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못 참고 끝까지 집요하게 파헤치는 성격”이라며 “좀 어렸을 때 진로를 이쪽으로 정했더라면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영화에서 철거 현장에서 벌어진 죽음에 의문을 품고, 언론이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는 열혈 사회부 민원기자 ‘공수경’ 역으로 분했다.

김옥빈은 “공수경의 실제 모델인 기자를 만나 많은 것을 물어봤다”며 “그분이 함께 술을 마시면서 담백하게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배역에) 시사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여기자들이 체력이 강하고 술도 엄청나게 세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웃었다.

그는 기자라는 직업에 이질감을 보이지 않으려고 옷을 수더분하게 입고, 화장도 거의 하지 않고 촬영했다고 덧붙였다.

영화는 강제철거 현장에서 일어난 두 젊은이의 죽음을 둘러싸고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100원짜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변호인단과 경찰의 진실공방을 담은 법정드라마다. 영화

는 2009년 발생했던 ‘용산 참사’를 모티브로 하면서 제작 단계부터 개봉까지 술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총연출을 맡은 김성재 감독은 “2013년 6월에 촬영을 끝내고 꼬박 2년이 지난 후에야 개봉하게 됐다”며 “강제철거를 진압하면서 일어난 비극을 다뤘지만, 법정 싸움에서 긴장과 흥미를 유발하도록 노력했던 대중영화”라고 소개했다.

김 감독은 “2009년 일어난 용산 참사를 다룬 영화라는 현실적 기시감이 있지만, 영화는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허구”라고 덧붙였다.

김 감독은 영화가 주는 정치적인 의미보다 법정 그 자체에 대한 취재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을 직접 참관하고, 국선변호인이 갖는 고단함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듣고 영화에 반영했다고 한다.

윤계상이 국가를 상대로 진실을 묻는 젊은 변호사 윤진원 역을, 유해진이 윤진원과 함께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뛰어들어 이혼 전문변호사 장대석 역을 맡았다. 또 의경 살인 혐의로 체포된 철거민 박재호 역에 이경영, 권력의 편에서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검사 홍재택 역에 김의성, 재판장 역할에 관해호가 출연해 호소적 질은 연기를 선보인다. 6월 25일 개봉 예정. /연합뉴스